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안녕하세요. 김선희 수녀입니다. 저는 구교집안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아세례를 받았고, 부모님들께서는 “데레사를 성모님께 봉헌했다.” 는 기도를 하셨다기에 수녀원을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계시지 않는 작은 본당에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포함하여 기가 죽은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면서 안쓰러워 보였고 “내가 만약 수녀가 된다면 수녀님들이 안 계시는



본당의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를 살려주는 본당 수녀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동기가 되었으며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면서 1990년 2월 18일 입회, 1997년 1월 28일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2년 수련자 때 첫 파견을 본당으로 가면서 저의 꿈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씨튼 장애인 직업 재활 센터, 간호 담당, 피정 집 주방과 6개 교구, 9개 본당, 25년 본당 소임을 통하여 30여 분의 사제님들을 사목협조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사제님이 되셨을까? 저런 분들이 양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상처 난 모습, 화난



감정을 그대로 양떼들에게 표현하는데 그럴 때 양떼들은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해왔지만 기쁨과 열정이 왜 없을까?...나에게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두려운 하느님,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했을 뿐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기에 늘 메마름과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뜨거운 성령 하느님의 체험을 통하여 아주 조금씩 조금씩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

랑의 하느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정 집에서 주방 사도직과 현재 본당에서 동생 수녀로 소임 하면서 치유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와 두려움, 열등감으로 사도직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수녀님들에게도 상처를 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한 이 죄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수녀님들께이 자리를 통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 기도 해주시는 공동체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육의 부족함, 약함, 죄를 비워내고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도록 희생하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내가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자랑하렵니다.” 2코린11:30



+My Lord, My God!



Hello, Sisters! I am Sr. Kim Sun Hee. I was born as the eldest of three boys and two girls in a traditional Catholic family. I was baptized in the name of 'Teresa' one month after of my birth. Therefore, it was natural to me to think of becoming a Catholic nun as a child when growing up, especially when I learned that my parents also offered me to God. The other motivation that made me enter the religious community is that our Parish did not have any sisters to take care of the Sunday School kids. So I decided to be a religious someday and go to the parishes with no sisters to teach children Catechism and cheer all who belong

to the Parish. With that desire, I served as Catechist at my Parish for several years and prepared for entering a religious community. I entered on February 18, 1990, and had perpetual vows on January 28, 1997. Missioned to Parish for the first time as the second-year Novice, I was grateful to God because my dream had come true. I was missioned to Seton Rehabilitation Center, as Director of Nursing of the Korean Province, to the Retreat House (Kitchen), and 9 Parishes in 6 Dioceses over 25 years. For parish works, I worked with thirty priests during those years as a pastoral assistant.



While working with various pastors, I often thought, how did they become priests? How can they lead their sheep to the right path as a shepherd? If they express their anger and hurt to the parishioners, how can their sheep find the right way? I always asked myself



this. And I reflected how can I not have joy and passion in my religious life though I have been in community life for over thirty years? Because I thought God was always fearsome and judgmental at that moment, and I came to realize my childhood hurt, fear, and sense of inferiority. I want to confess I am a sinner and ask their forgiveness because I might have hurt them sometimes due to my incurred emotions or hurts. Little by little I

came to know the God of Love. I also thank my sisters and community for waiting and praying for me. I pray God to empty myself of weakness, sinfulness, and fill me with the spirit of God, and make me sacrifice for others. Thank you, and I love you! "If I have to boast, I will boast of all the ways in which I am weak. "(II Corinthians Chapter 11:30)

